

1월 20일(토) / 에리트레아

에리트레아 정부는 에리트레아 정교회, 가톨릭, 루터교, 수니파 이슬람교를 제외한 어떤 종교 단체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의 인정을 받지 못한 교회는 지역사회의 지원, 특히 국가에 의해 제공되는 사회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심각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복음적 기독교인들이 사회의 불이익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을 끝까지 지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담당하기를 기도합니다.

1월 21일(일) / 예멘

안타깝게도 예멘은 최근 몇 년간의 전쟁으로 황폐화되어 많은 사람들이 난민이 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의 희망은 난민캠프에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또한, 예멘 신자 중 최대 70%는 보안상의 이유로 정기적으로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정교회를 통해 교제를 회복하고 믿음이 성장하길 기도합니다. 점점 늘어나는 어려움 속에서도 예멘의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와 수단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1월 22일(월) / 나이지리아

현재 나이지리아 중부에서 일어난 폭력은 나이지리아의 가장 심각한 안보 위기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고, 2019년 10월부터 2020년까지 5,678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인 보코하람, 풀라니 무장세력 그리고 무장 강도들의 모든 계획들을 파하여 주시고, 나이지리아 중부 지역의 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희망과 치유, 회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1월 23일(화) / 파키스탄

파키스탄 법원이 신성모독 혐의로 체포된 기독교인 부부(키란 비비와 쇼카트 마시)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보석을 허가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파키스탄은 이란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신성모독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소수의 기독교인(1.8%)을 신성모독법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월 24일(수) / 수단

수단은 현재 지난 4월부터 군부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군부의 정권 탈취에 반대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고, 최소 17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의 일상 생활이 이번 사태로 인해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정상적인 활동이 재개되지 않아 가족을 위해 매일 고된 노동에 의존하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왕들의 마음도 시냇물처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수단교회의 성도들에게 피할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전쟁이 끝나고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1월 25일(목) / 이란

지난 12월 11일, 이란 정보부 요원 4명이 카라즈(테헤란 교외)에 있는 밀라드(Milad Goodarzi) 형제의 집을 급습했습니다. 밀라드는 체포되어 현재 알 수 없는 장소로 이송된 상태입니다. 기독교 선전활동 혐의로 징역형으로 복역하다가 석방된 밀라드가 심문을 받는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답변할 때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란 당국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자국민을 괴롭히고 박해하는 것을 멈추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1월 26일(금) /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이슬람을 떠나는 것을 집안의 수치로 여기며, 명예살인이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탈레반은 이슬람 율법에 대한 극단적인 해석에 따라 소수 종교인을 계속 박해하고 통제지역의 주민들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탈레반 지도자들과 기독교인들을 억압하려는 극단주의자들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을 통하여 그 지도자들을 감동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진리를 그들에게 나타내시기를 기도합니다.

1월 27일(토) / 인도

2023년 5월, 인도 북동부 마니푸르 주에서 쿠키족과 메이테이족 사이에 민족-종교 분쟁이 발생하여 대규모 폭력과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이 분쟁은 쿠키족의 평화적인 시위를 힌두교 극단주의 단체가 악용하면서 시작되었고, 그 결과 살인, 재산 파괴, 강제 신앙 포기를 포함한 광범위한 폭력이 발생했습니다. 수천 명의 기독교인 가정이 난민이 되어 아무런 수입 없이 공포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쿠키족과 메이테이족 기독교인들에 대한 성폭행과 잔혹 행위가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과 같이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1월 28일(일) / 오픈도어 사역자

오픈도어는 전세계 70여 국에서 1,300여 명의 사역자들이 박해가 가장 극심한 지역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브래더 앤드류가 걸어 갔던 길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믿음과 용기를 잃지 않고, 겸손하게 박해 받는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한국 오픈도어 개발지부의 김경복(사무총장), 황자경(교회개발), 문민환(교회개발), 김하영(정보), 박인영(재정), 민태홍(홍보) 간사들이 성령에 충만하며 오픈도어의 소명을 따라 끝까지 충성하기를 간구합니다.

1월 29일(월) / 시리아

지난 11월 9일 목요일 새벽, 시리아 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이 과거의 공포와 두려움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특히 알레포와 라타키아 주민들

은 지난 2월에 발생한 지진으로 최악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진으로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알레포와 시리아 북부의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아물지 않은 상처가 치유되고 평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민들을 위로하고 섬기도록 기도합니다.

1월 30일(화) /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이슬람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온 개종자들은 고국의 문화적 규범을 반영하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회적 분위기가 개종에 반대하는 경우 위협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의 소수의 개종자들은 대개 폭력, 이혼 등의 위험 속에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동안 목숨을 걸고 대담하게 신앙을 고백한 사우디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1월 31일(수) / 말리

알카에다와 연계된 무장세력으로 추정되는 납치범들에 의해 1년 동안 억류되었던 독일인 신부 한스 요아킴 로레(Hans Joachim Lohre) 신부가 석방되었습니다. 자유를 얻게 된 것에 대해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신앙 때문에 억압받거나 억류된 성도들과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 기도월력을 신청하세요!
기도회에서 나누실 수 있도록 원하시는 부수대로 보내드립니다.

- 오픈도어유클리(Open Doors Weekly)를 구독하세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소식과 기도제목을 매주 보내드립니다.

-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해주세요!
다양한 기도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오픈도어선교회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02153 서울시 중랑구 봉우재로 133, 화성빌딩 2층

전화: 02-596-3171 팩스: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

카카오톡 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등록번호 중랑, 라00042 부록

2024
JANUARY

VOL.

박해 받는 교회를 위한

기도월력 261



Ch



카톡에서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채널을 추가하세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 마태복음 25장 40절 -



OpenDoors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1월 1일(월) / 북한

북한 당국은 특히 복음에 매우 적대적입니다. 사회 안전요원들이 급습해 성경과 기독교의 흔적을 찾기 위해 집을 샅샅이 뒤지는 경험은 가족들에게 큰 트라우마로 작용합니다. 지호*는 집에 급습한 안전요원들에 의해 성경이 발각되었을 때 아버지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아버지를 어디로 데려갔는지 모릅니다.” 그녀는 수년 동안 아버지를 보지 못했고, 아버지 없이 자랐습니다. 지호가 외롭지 않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위기를 잘 극복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지호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헤어진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1월 2일(화) / 북한

북한은 어린이들에게 서양 선교사들이 사람들을 납치하고 죽인다고 선전하며 가르칩니다. 그러나 북한 사람들은 비밀리에 라디오를 통해 외부 세계의 소식과 식량을 구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를 듣습니다. “듣다 보니 점점 확신이 생겼어요. 이 예수님은 내 아버지가 나에게 전하려고 했던 위대한 선생님이었습니다.” 오픈도어 라디오 방송사역을 통해 지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전파사역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1월 3일(수) / 부탄

지난해 부탄의 한 교회에서 진행 중이던 모임에 경찰이 들이닥쳐 예배를 방해하고 중단시켰습니다. 경찰은 신도들의 사진과 교회에 대한 세부 정보를 가져갔고, 교회 운영을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신자들은 밤에 계속 모이고 있지만 여전히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당국의 감시로부터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 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이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월 4일(목) / 방글라데시

MBB(무슬림 배경의 신자)는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항상 핍박을 받고 집에서 쫓겨나며 가족과 자신에 대한 모든 권리를 잃습니다. 그들은 노숙자가 되고, 식량은 부족해지며, 심지어 목숨마저 위협해 집니다. 사르카르 목사님은 신앙 때문에 집에서 쫓겨난 후에 위기를 겪으면서도 방글라데시 북서부 지역에서 무슬림들을 전도하고 지역 부족민들을 돌보는 등 주님을 충실히 섬기고 있는 MBB입니다. 사르카르 목사처럼 신앙 때문에 공격을 받거나 신체적 학대를 당한 방글라데시 그리스도인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1월 5일(금) / 예멘

살레*는 기독교인으로 당국의 '긴급 수배' 명단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로 인해 심각한 위협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살레가 사역하는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의 가족의 안전을 위해 기도

합니다. 살레는 훈련과 말씀 무장의 유일한 대안인 온라인 모임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살레의 제자도에 대한 갈망과 온라인 모임이 지속적으로 이뤄져 많은 열매를 거두길 기도합니다.

1월 6일(토) / 쿠바

1959년부터 쿠바는 공산당에 의해 통치되고 있으며, 공산당은 공산주의 이념에 따라 교회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쿠바 정부는 야당의 목소리와 시위대에 대해 가혹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교회 지도자나 기독교 활동가들이 정권을 비판하면 체포, 교회나 사업체 폐쇄, 징역형 등 정부와 그 동조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가정교회에서 모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롭고 순결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월 7일(일) / 일어나라 아프리카 캠페인

오픈도어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폭력적 기독교 박해에 맞서서 Arise Africa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전세계 교회들이 아프리카의 폭력적인 박해에 맞서서 함께 깨어 기도하고, 지원하며,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일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앞으로 400만 명의 기독교인을 찾아가 영적, 물질적 그리고 정신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캠페인을 통하여 아프리카 교회가 위로 받고, 폭력적 박해에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증인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1월 8일(월) /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 북부 바우치 주에 사는 로다(Rhoda Jatau)는 신성모독법 혐의로 19개월이상 수감되어 있다가 지난 12월 8일 가석방되었습니다. 그녀의 혐의는 한 젊은 여성이 돌에 맞고, 불에 타 숨지는 잔혹한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로다는 현재 안전을 위해 공개되지 않은 장소로 이송되었으며, 여전히 신성모독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로다의 석방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로다가 더욱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나이지리아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과 같이 흘러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1월 9일(화) / 나이지리아

자카리아 목사의 아내와 아들은 지난 5월 풀라니 무장세력의 공격으로 사망했습니다. 그에게는 여전히 네 자녀가 남아있습니다.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카리아 목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교회 신자들을 믿음으로 인도하기를 간구합니다.

1월 10일(수) / 부르키나파소

부르키나파소에서 이슬람 무장단체의 폭력으로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납치, 성폭력, 죽음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르키나파소의 폭력이 종식되게 하시고, 특히 상처 입은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월 11일(목) / 카메룬

카메룬 북단지역에서 폭력 사태가 끝나기를 기도합니다. 북부 지역에서 이슬람 무장세력의 영향으로 인해 많은 교회의 활동이 방해받고 있습니다. 보안 명령으로 인해 교회 생활도 크게 제한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며, 위축된 교회의 활동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1월 12일(금) / 중앙 아프리카

2013년 이후 중앙아프리카공화국(CAR)에서 계속되는 분쟁으로 인해 수천 명의 기독교인이 집과 생계를 잃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국내 실향민 캠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폭력의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극단주의자들의 표적이 되는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1월 13일(토) / 콩고

동부 콩고의 기독교인들은 이슬람국가(IS)와 연계된 연합민주군(Allied Democratic Forces)과 같은 이슬람 무장세력의 표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폭력적인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온전히 세워 지기를 기도합니다.

1월 14일(일) / 월드와치리스트[기독교 박해지수] 발표

지난 30년 동안 오픈도어는 박해현장의 변화를 면밀히 예의주시하며, 사역할 지역을 찾기 위하여 월드와치팀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 연구결과 매년 세계 박해지수 상위 50개국을 발표해 왔습니다. 올해는 1월17일(수) 오픈도어 회의실에서 국내 기독교 방송, 언론, 그리고 후원자들을 모시고,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모든 진행과정을 순조롭게 하시고, 한국 교회 선교 실무자들에게 귀하게 쓰임 받는 도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1월 15일(월) / 리비아

위성 TV에 기독교 프로그램이 나오고 아랍어로 된 기독교 웹사이트가 등장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셜 미디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기독교인들이 리비아에서 공개적으로 신앙 생활할 자유를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리비아 교회에게 모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월 16일(화) / 콜롬비아

콜롬비아와 불법 무장 단체와의 평화 조약은 아직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에 대한 폭력은 일상적이며 여전히 삶의 일부이며 목회자들은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위험에서 교회 지도자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기도합니다.

1월 17일(수) / 북한

북한은 연일 사상통제와 종교박해의 강도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평안남도 순천시 동암리 지하교회 적발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김정욱(2013), 김국기(2014), 최춘길(2014)선교사와 탈북민 출신 김원호(2016), 함진우(2016), 고현철(2016)씨, 그리고 조선족 사역자들은 여전히 북한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박해 속에서도,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특별히 갇혀 있는 성도들과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더욱 굳센 믿음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1월 18일(목) / 소말리아

전체 인구 1700만명 가운데 겨우 수백명으로 추정되는 소말리아 기독교인들은 현재 극심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무슬림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알샤바브(Al-Shabaab)의 주요 공격 표적이 되고 있으며, 발각되는 즉시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도 5명이 현장에서 죽고, 3명이 부상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매일 당하는 수많은 위협과 공격에서 극소수의 소말리아 기독교인을 지켜 주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월 19일(금) / 리비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이집트의 이민자들 중에는 상당수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무슬림이 아닌 경우는 대부분 외국인들 뿐입니다. 무슬림 출신의 리비아 기독교인 수는 WWL자료에 의하면 34,600(0.5%)명에 불과합니다. 리비아의 사회적 불안정과 무질서는 기독교인들에게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이민자 기독교인들의 안전을 위하여 사회질서가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